

2021년 11월 19일(금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11.18.(목)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)

| | | |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
| 배포일시 | 2021. 11. 18.(목) | 담당부서 | 자동차과 |
| 담당과장 | 이민우 과장(044-203-4320) | 담당자 | 이현진 주무관(044-203-4323) |

2021년 10월 자동차산업 동향 (잠정)

- 친환경차 내수판매비중 (27.2%), 수출액 비중 (29.7%) 역대 최고 -
- 전기·수소차 수출액 (6.1억불) 및 친환경차 수출액 (11.4억불) 역대 최대치 -
- 국산 전기차 월 판매대수 첫 1만대 돌파, 국산 친환경차 (27만대) 월 역대 최다 판매 -
- 차량용반도체 수급 차질에도 주요 OEM 대비 국내완성차 생산·판매 선방 -

【 자동차 】

□ (총괄) '21년 10월 자동차산업은 전년 동월 대비 생산은 △21.6%, 내수는 △21.4%, 수출은 △18.1% 감소(수출액은 △4.7% 감소)한 것으로 잠정 집계

○ 당초 3분기에는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 차량용반도체 수급난이 말레이 등 동남아發 공급위기로 회복세가 지연되며 생산 및 수출 감소 지속되었으나,

- 10월 하순부터 현대·기아는 주말 특근 실시, 르노삼성은 가동률 상향 조정하는 등 생산 감산 규모 축소 노력

* 한국지엠은 부품 공급 상황, 출고차량 재고 등을 고려하여 주 단위 조업계획 조정

< '21년 10월 자동차산업 실적 (단위:대, 억불, %) >

| 구분 | '21.10월 | 전월비(%) | 전년동월비(%) | '21.1-10월 | 전년동기비(%) |
|----------|---------|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|
| 생산(대) | 263,723 | 15.0 | △21.6 | 2,840,219 | △1.6 |
| 내수(대) | 125,296 | 10.0 | △21.4 | 1,428,226 | △7.9 |
| 국산차(대) | 106,263 | 16.5 | △21.0 | 1,175,936 | △10.9 |
| 수입차(대) | 19,033 | △16.1 | △23.5 | 252,290 | 9.6 |
| 수출(대) | 159,520 | 5.5 | △18.1 | 1,680,863 | 10.3 |
| 수출금액(억불) | 38.3 | 7.6 | △4.7 | 381.2 | 27.9 |
| 부품수출(억불) | 17.9 | △3.7 | △1.2 | 188.2 | 28.8 |

* 자료 : 한국자동차산업협회, 한국수입자동차협회, 무역협회

□ (생산) 차량용반도체 수급 차질로 인한 한국지엠 및 쌍용의 휴업영향 등으로 $\Delta 21.6\%$ 감소한 263,723대

* 휴업현황 : (GM) 10월1~2주 부평1공장 휴업, 2공장 50% 감산, 10월3주 부평1공장 40%, 부평2공장 20% 감산, 10월4주 부평1공장 80%, 2공장 30% 감산, (쌍용) 10.7~8, 10.19~20 휴업

** 업체별 생산 증감률(%): 현대 $\Delta 11.1$, 기아 $\Delta 25.9$, 한국지엠 $\Delta 82.8$, 쌍용 $\Delta 53.0$, 르노삼성 +201.6

○ 현대·기아는 출고 적체가 심한 차종 중심으로 주말 특근을 실시하면서 전월대비 감소폭이 완화

* 현대 ('21.9) $\Delta 30.4\%$ → ('21.10) $\Delta 11.1\%$, 기아 ('21.9) $\Delta 28.6\%$ → ('21.10) $\Delta 25.9\%$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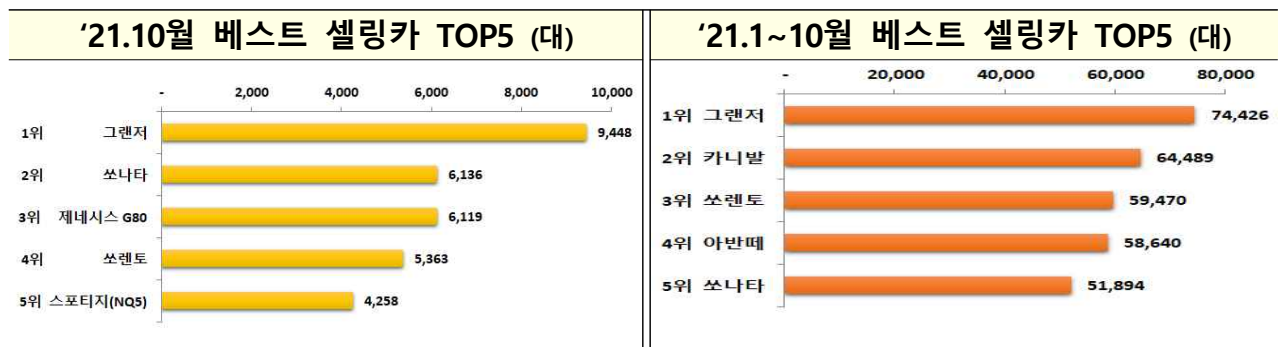
○ 르노삼성은 XM3(하이브리드 포함)의 유럽 수출 호조세가 생산 증가를 견인하며 지난달에 이어 2개월 연속 증가세(+201.6%) 시현

○ 한국지엠 및 쌍용은 부품 수급 부족 영향으로 생산 감소 지속

* (GM) 글로벌 GM 본사의 차종별 재고 균형 조정으로 부평1공장(트레일블레이저 생산)이 2주 휴업하면서 다른 달 대비 생산차질 심화, (쌍용) 부품 공급 차질로 조업 중단(4일)

□ (내수) 차량용 반도체 공급부족에 따른 출고 적체 현상 심화 등으로 $\Delta 21.1\%$ 감소한 125,296대

○ 베스트 셀링카(승용) TOP5는 모두 국산차가 차지, 이번 달은 그랜저가 9월 베스트 셀링카 1위를 기록



- (국산차) 출고적체 현상 지속으로 $\Delta 21.5\%$ 감소하였으나, 친환경차는 신차판매 호조세 등으로 67.4%증가하며 월 최다 판매(2.7만대) 기록

- (수입차) 독일계(BMW, 아우디), 일본계(도요타), 미국계(포드, 링컨)의 판매 감소로 전년동월비 $\Delta 23.5\%$ 감소한 19,033대

* 독일계 : 벤츠($\Delta 44.9\%$), BMW($\Delta 9.3\%$), Audi(+4.4%) 등 $\Delta 25.8\%$ 감소

* 일본계 : 도요타($\Delta 5.8\%$), 혼다(+69.1%) 등 $\Delta 1.8\%$ 감소

* 국가별 판매 증감률(%) : 미국 $\Delta 26.9\%$, 영국 $\Delta 16.4\%$, 프랑스 +58.7%, 이탈리아 +4.7% 등

- (연료별) '21.1~9월 내수판매 현황 비교시 내연기관차는 감소하는 반면, 친환경차는 증가세 시현
- 특히 디젤차 비중이 전년동기대비 $\Delta 5.7\%p$ 감소하고, 하이브리드 비중은 $4.5\%p$, 전기차 비중은 2.7% 각각 증가

[연료별 내수판매 현황]

| 구 분 (대, %) | '20. 1-9월 | | '21. 1-9월 | | 전년 동기비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| 대 | 비중 | 대 | 비중 | |
| 친환경차 | 150,338 | 10.8 | 249,215 | 19.1 | 65.8 |
| 하이브리드 | 105,726 | 7.6 | 158,216 | 12.1 | 49.6 |
| 전기차 | 35,480 | 2.6 | 68,587 | 5.3 | 93.3 |
| 플러그인하이브리드 | 4,456 | 0.3 | 15,991 | 1.2 | 258.9 |
| 수소차 | 4,676 | 0.3 | 6,421 | 0.5 | 37.3 |
| 내연기관차 | 1,240,574 | 89.2 | 1,053,715 | 80.9 | $\Delta 15.1$ |
| 가솔린 | 707,629 | 50.9 | 639,841 | 49.1 | $\Delta 9.6$ |
| 디젤 | 438,201 | 31.5 | 335,755 | 25.8 | $\Delta 23.4$ |
| LPG | 94,744 | 6.8 | 78,119 | 6.0 | $\Delta 7.5$ |
| 전체 합계 | 1,390,912 | 100.0 | 1,302,930 | 100.0 | $\Delta 6.3$ |

* 자료 : 한국자동차산업협회, 한국수입자동차협회

- (수출) 글로벌 점유율 상승세 및 친환경차 최다 수출기록에도 불구하고, 차량용반도체 부족 등으로 대수는 $\Delta 18.1\%$ 감소한 159,520대

* 주요 글로벌 시장 내 국내 브랜드 점유율
 [미국] ('20.10) 8.4% → ('21.10) **10.9%(2.5%p↑)** / [유럽] ('20.9) 7.8% → ('21.9) **11.1%(3.3%p↑)**

** 친환경차 수출 현황 : '20.10월 2.9만대 → '21.10월 3.9만대(+32.9%), **역대 최고**
 하이브리드 17,993대(29.1%↑), 플러그인하이브리드 3,774대(97.7%↑), 전기차 16,718대(27.4%↑)

- 수출금액은 전기·수소차 수출액(6.1억불) 및 친환경차 수출액(11.4억불)이 최대치를 기록하였으나, $\Delta 4.7\%$ 소폭 감소한 38.3억불 기록
- 고부가 차종인 친환경차 수출이 역대 최고 기록을 시현하며 수출 단가 상승을 견인, 대수 대비 상대적으로 적게 감소

* 수출대수 비중 : [친환경차] ('20.10) 15.4% → ('21.10) **25.1%(9.7%p↑)**, **역대 최고**
 [전기차] ('20.10) 7.0% → ('21.10) **10.9%(3.9%p↑)**

- (지역별) 북미시장은 차량용반도체 영향으로 수출물량이 감소하여 부진한 반면, 유럽시장은 친환경차 수출 호조세로 증가세 시현

※ '21.10월 지역별 잠정 수출실적(백만달러, 전년동월) : 북미(1,487, $\Delta 24.8\%$), EU(661, 2.9%), 동유럽(469, 20.9%), 중동(432, 11.8%), 중남미(237, 38.8%), 아프리카(37, $\Delta 9.8\%$), 오세아니아(266, 15.2%), 아시아(233, 29.5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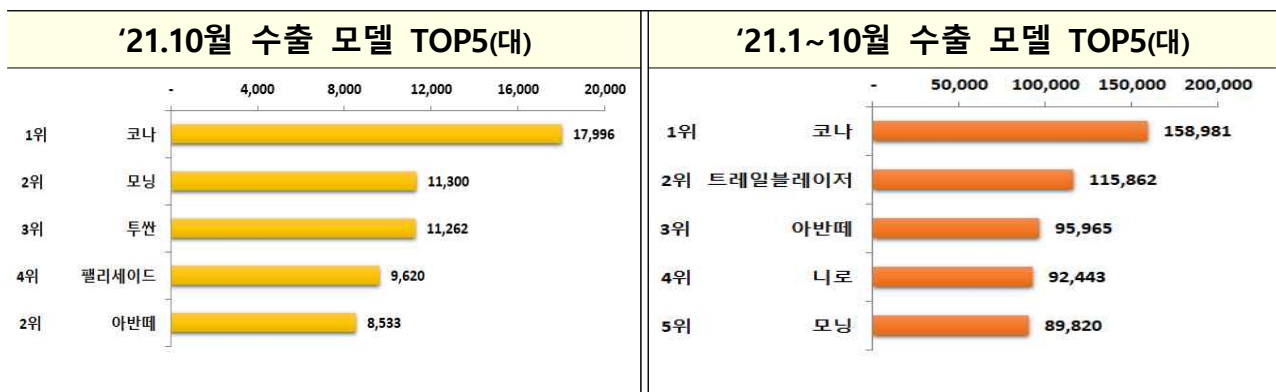
○ (업체별) 르노삼성은 전년 동월 닛산로그 수출중단에 따른 기저효과 및 XM3 수출 호조 등으로 유일한 증가세 시현

- 현대, 기아, 한국지엠, 쌍용은 생산차질 영향 등으로 감소하였으나, 10월 하순부터 감산규모 축소를 통해 수출 차질 최소화 노력 중

* 수출대수 증감률(%): 현대 △6.8, 기아 △18.9, 한국지엠 △82.0, 쌍용 △43.1, 르노삼성 +1,590.1

○ (모델별) 코나, 모닝, 투싼, 팰리세이드, 아반떼 등 SUV, 경형, 소형 세단 모델이 수출 견인

* 차종별 증감률(%): 경형 △32.7, 소형 △22.6, 중형 +6.8, 대형 △53.8, SUV △16.8, CDV +1,952.2



○ (연료별) 여전히 내연기관차 수출비중이 높으나, 친환경차 수출 비중이 전년동기대비 3.6%p 상승 하며 확대중

[연료별 수출 현황]

| 구 분 (대, %) | '20. 1-9월 | | '21. 1-9월 | | 전년 동기비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|
| | 수출대수 | 비중 | 수출대수 | 비중 | |
| 친환경차 | 195,513 | 14.7 | 279,065 | 18.3 | 42.7 |
| 하이브리드 | 88,700 | 6.7 | 151,300 | 9.9 | 70.6 |
| 전기차 | 86,124 | 6.5 | 100,076 | 6.6 | 16.2 |
| 플러그인하이브리드 | 19,824 | 1.5 | 26,796 | 1.8 | 35.2 |
| 수소차 | 865 | 0.1 | 893 | 0.1 | 14.5 |
| 내연기관차 | 1,133,639 | 85.3 | 1,242,278 | 81.7 | 9.6 |
| 가솔린 | 686,155 | 51.6 | 852,345 | 56.0 | 24.2 |
| 디젤 | 447,484 | 33.7 | 389,933 | 25.6 | △12.9 |
| 전체 합계 | 151,214 | 100.0 | 1,521,343 | 100.0 | 14.5 |

* 자료 : 한국자동차산업협회, 한국수입자동차협회

【 친환경차 】

□ (총괄) 내수는 전년동월비 61.4% 증가한 34,137대, 수출은 전년동월비 32.9% 증가한 38,538대로 10개월 연속 내수와 수출 모두 증가

○ 내수, 수출 모두 '21.1~10월 누적 판매대수가 약 30만대를 기록하며 확산세를 이어가고 있음

* 친환경차 누적 내수판매·수출대수 현황 :

[내수 (20년) 227,089대 → ('21.1~10월) 283,332대 / [수출 (20년) 271,327대 → ('21.1~10월) 317,603대

□ (내수) 21개월 연속 증가세 시현, 내수판매비중 역대 최고 기록

○ 쏘나타 판매호조로 34,137대 판매, 친환경차 내수판매 비중은 車 판매비중의 27.2%(13.9%p↑) 차지, 2개월 연속 월간 최다 판매비중 경신

* 하이브리드 20,413대(27.9%↑), PHEV 1,850대(93.3%↑), 전기차 10,934대(204.1%↑), 수소차 940대(46.9%↑)

* 친환경차 내수판매비중: ('19.10월) 7.6% → ('20.10월) 13.3% → ('21.10월) 27.2%(13.9%p↑)

- (국산차) 전기차가 처음으로 月 1만대 돌파, 친환경차는 4개월 연속 2만대를 상회(26,534대)하며 전체 내수판매 증가 견인

* 국산 하이브리드차 판매 : ('20.10월) 11,793대 → ('21.10월) 15,184대(+28.8%)

* 국산 전기차 판매 : ('20.10월) 3,353대 → ('21.10월) 10,410대(+210.5%)

* 국산 수소차 판매 : ('20.10월) 640대 → ('21.10월) 940대(+46.9%)

- 특히, '18년 이후 내수판매 상위모델은 하이브리드차 모델이 강세였으나, '21.6월 이후 5개월 연속 전기차 모델이 최다판매 모델을 차지

* '21.10월 국산차 판매순위: 1위 아이오닉5EV(3,783대) > 2위 그랜저HEV(3,137대) > 3위 쏘렌토 HEV(2,913대) > 4위 EV6(2,762대) > 5위 K8HEV(2,183대)

- (수입차) 전기차(+115.6%), 하이브리드(+825.6%), 플러그인 하이브리드(+93.3%) 판매호조로 76.2% 증가한 7,603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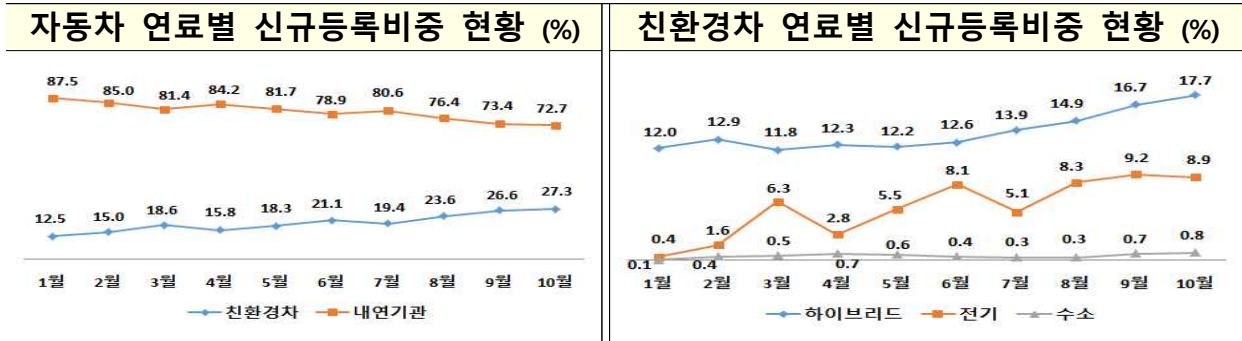
○ 연료별로는 전기차가 204.1%, 하이브리드차가 27.9%,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가 93.3%, 수소차가 46.9% 증가하며 대폭 확대

* 연료별 판매대수: 하이브리드 20,413대(27.9%↑), 플러그인하이브리드 1,850대(93.3%↑), 전기차 10,934대(204.1%↑), 수소차 940대(46.9%↑)

- 특히 전기차가 전년 동월 대비 3배 이상 증가하며 3개월 연속 1만대 돌파,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기반한 신규차종*의 호조세에 기인

* E-GMP 기반 전기차 판매대수 : 아이오닉5 EV 3,783대, EV 6 2,762대

- '21년 월별 연료별 신규등록대수 비중은 내연기관차는 감소하는 반면 친환경차는 증가세 시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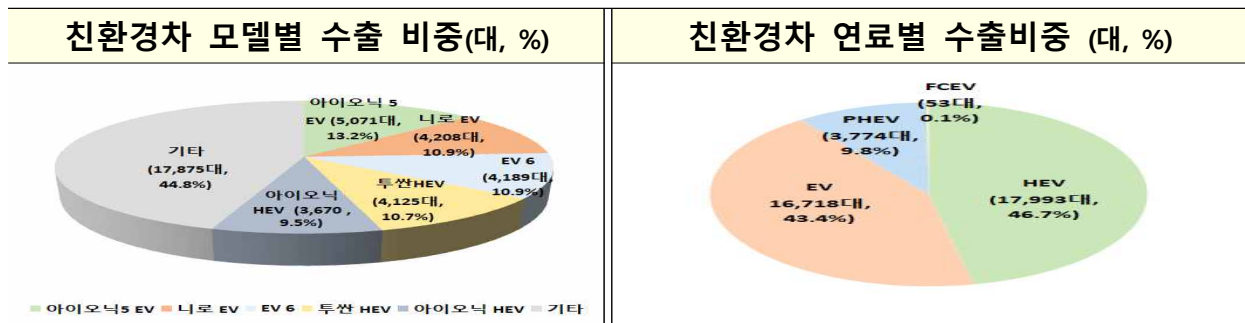
* 출처 : 국토부 등록통계(하이브리드차는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 포함)

- (수출) 대수는 32.9% 증가한 38,538대, 수출금액은 +41.8% 증가하며 2개월 연속 10억불 돌파(11.4억불) → 역대 최고 수출대수·금액 달성

- 이번 달은 쏠 차종 수출확대로 월간 역대 최다 수출 대수 달성

* 연료별 수출대수: 하이브리드 17,993대(29.1%↑), 플러그인하이브리드 3,774대(97.7%↑), 전기차 16,718대(27.4%↑, 역대 최고), 수소차 53대(55.9%)

- 특히 전기차가 신차효과 등으로 월간 최다 수출(1.7만대)을 기록하며 전체 수출대수 증가에 크게 기여
- 모델별로는 아이오닉5EV(5,071대), 니로EV(4,208대), EV6(4,189대), 투싼 HEV(4,125대), 아이오닉HEV(3,670대) 등이 수출 증가 견인



- 수출금액은 41.8% 증가한 11.4억불 달성, 2개월 연속 10억불을 돌파 하며 친환경차 월 수출금액 최고 기록 달성

* '20.10월 8.0억불 → '21.10월 11.4억불(+41.8%)
전기·수소차 16.0%(6.1억불), 하이브리드 10.5%(4.0억불), PHEV 3.2%(1.2억불)

- 특히 전기·수소차 수출금액이 신차효과에 힘입어 역대 최고인 6.1억불을 기록하며 전체 친환경차 수출금액 상승에 크게 기여

* 전기·수소차 수출액 증가율(백만달러, %): ('20.10) 440(+67.3) → ('21.10) 612(+39.1)

○ 친환경차 수출은 전체 자동차 수출의 25.1%, 수출금액의 29.7% 차지, 대수·금액·비중 모두 역대 최대치

* 친환경차 수출대수비중: ('19.10월) 11.5% → ('20.10월) 15.4% → **(‘21.10월) 23.8%(8.4%p ↑)**

* 친환경차 수출금액비중: ('19.10월) 14.5% → ('20.10월) 20.0% → **(‘21.10월) 29.7%(9.7%p ↑)**

○ 친환경차 수출액은 이르면 내달 또는 연말에 금년 누적 수출액이 100억불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 ('21.10월 누적기준 91.2억불)

21년 친환경차 월별 수출액 현황 (백만불)



* 출처 : 무역협회

【 '21.1~9월 생산·판매 국제 비교 】

□ (생산) '21년 3분기까지 글로벌 자동차 생산은 전년 동기대비 5.9% 증가하였으나, '19년 동기대비는 △17.9% 감소

○ '19년 동기 비교시, 주요 OEM들이 대체로 30% 내외의 감소세를 보인 반면 도요타, 현대·기아는 10%대 수준으로 비교적 양호

○ 국가별 증감률도 한국은 중국, 인도 제외시 가장 작은 감소율 시현

* 對19년 증감률(% , ~'21.3Q 기준) : 중국 +0.6, 미국 △26.2, 일본 △21.4, 인도 △6.2, 한국 △11.6, 독일 △40.3, 멕시코 △23.8, 스페인 △26.45, 브라질 △29.3 등

| 순위 | 업체명 | 21.1-9월(대) | 21.1-9월(대) | | 19.1-9월(대) |
|----|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|
| | | | 對19년(%) | 對20년(%) | |
| 1 | 도요타 | 6,844,588 | △10.1 | 13.1 | 7,610,930 |
| 2 | VW | 5,743,761 | △26.2 | △3.5 | 7,782,918 |
| 3 | 현대·기아 | 4,594,225 | △14.0 | 7.1 | 5,342,690 |
| 4 | 스텔란티스 | 4,507,374 | △29.9 | 2.5 | 6,431,207 |
| 5 | 르노·닛산 | 4,126,529 | △32.7 | 1.1 | 6,134,862 |
| 6 | GM | 3,959,855 | △28.1 | △7.3 | 5,509,206 |
| 7 | 혼다 | 2,885,165 | △25.6 | △4.0 | 3,877,663 |
| 8 | 포드 | 2,479,957 | △36.2 | △10.1 | 3,887,765 |
| | 기타 | 20,573,024 | △3.3 | 15.4 | 21,285,288 |
| | 계 | 55,714,478 | △17.9 | 5.9 | 67,862,529 |

* 출처 : Marklines

- (판매) '21년 3분기까지 글로벌 자동차 판매는 전년 동기대비 10.4% 증가하였으나, '19년 동기대비는 △10.3% 감소
 - '19년 동기 대비, 주요 OEM의 판매량 감소 비율은 두 자릿수를 기록한 반면, 현대·기아(△2.3%), 도요타(△3.8%)는 판매량 감소 최소화
 - 이를 바탕으로 현대·기아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도 (19년) 5위 → (20년) 4위 → (21년 3/4분기) 3위로 지속 상승

| 순위 | 업체명 | 21.1-9월 (대, %) | | | | 20.1-9월 | 19.1-9월 | |
|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
| | | 對19년 | 점유율 | 對20년 | 점유율 | | | |
| 1 | 도요타 | 7,317,911(12.4) | △3.8 | 11.5 | 17.0 | 11.7 | 6,253,975 | 7,603,801 |
| 2 | VW | 6,234,037(10.5) | △17.9 | 11.5 | 1.7 | 11.4 | 6,127,533 | 7,597,738 |
| 3 | 현대·기아 | 4,974,798(8.4) | △2.3 | 7.7 | 14.0 | 8.1 | 4,363,281 | 5,092,700 |
| 4 | 스텔란티스 | 4,763,512(8.0) | △20.5 | 9.1 | 9.8 | 8.1 | 4,338,255 | 5,990,206 |
| 5 | 르노·닛산 | 4,539,385(7.7) | △25.5 | 9.2 | 1.2 | 8.4 | 4,486,771 | 6,090,727 |
| | 기타 | 31,394,593(53.0) | △6.6 | 50.9 | 11.8 | 52.3 | 28,080,248 | 3,3613,613 |
| | 계 | 59,224,236(100) | △10.3 | 100.0 | 10.4 | 100.0 | 53,650,063 | 65,988,785 |

* 출처 : Marklines

【 자동차 부품 】

- '21.10월 자동차부품 수출은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이 해소되지 않는 가운데, 해외 현지 공장 가동률이 정상레도 수준으로 회복하지 못하면서 전년동월비 전년 동월과 유사수준인 17.9억불(△1.2%) 기록
 - * '21.10월 자동차부품 잠정 수출(백만 달러, 전년동월) : 북미(512, △9.9%), EU(322, △3.7%), 중동(63, 9.2%), 중남미(184, △3.7%), 아시아(495, 1.6%), 동유럽(196, 24.3%), 아프리카(6, 31.8%), 오세아니아(7, 34.6%)

【붙임】 1~4. 10월 자동차 생산, 내수, 수출, 친환경차 동향
5~6. 10월 업체별 자동차 및 승용차 판매현황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과 이현진 주무관(☎ 044-203-4323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참고 1

10월 자동차 생산 동향

□ (총괄) 차량용반도체 수급 차질로 인한 한국지엠 및 쌍용의 휴업영향 등으로 △21.6% 감소한 263,723대

* 휴업현황 : (GM) 10월1~2주 부평1공장 휴업, 2공장 50% 감산, 10월3주 부평1공장 40%, 2공장 20% 감산, 10월4주 부평1공장 80%, 2공장 30% 감산, (쌍용) 10.7~8, 10.19~20 휴업

○ (현대) 차량용 반도체 부품공급 부족으로 모든 생산 공장들이 평균 90% 미만으로 가동하며 전년동월비 △11.1% 감소한 139,598대

○ (기아) 반도체 부품 공급 차질로 인한 생산 차질 등으로 전년동월비 △25.9% 감소한 99,188대

○ (한국지엠) 차량용 반도체 수급 차질로 부평1, 2공장 조업 중단 및 감산 (30~40% 가동), 라인 공사에 따른 창원공장 가동중단 등으로 △82.8% 감소한 5,199대

○ (쌍용) 반도체 공급 부족현상에 따른 생산차질(생산라인 50~60% 가동) 및 조업중단 등으로 전년동월비 △53.0% 감소한 4,833대

○ (르노삼성) 르노그룹의 부품 우선 공급정책 및 전년동월 기저효과 등으로 전년동월비 201.6% 증가한 14,014대

< '21. 10월 업체별 생산 현황 >

(단위 : 대, %)

| 구 분 | '21.10월 | | 전월비 | 전년동월비 | '21.1-10월 | 전년동기비 |
|------|-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----|-------|
| | 생산량 | 점유율 | | | | |
| 합 계 | 263,723 | 100.0 | 15.0 | △21.6 | 2,840,219 | △1.6 |
| 현 대 | 139,598 | 52.9 | 31.0 | △11.1 | 1,319,725 | 0.3 |
| 기 아 | 99,188 | 37.6 | 5.1 | △25.9 | 1,148,771 | 5.7 |
| 한국지엠 | 5,199 | 2.0 | △56.0 | △82.8 | 200,869 | △31.3 |
| 쌍 용 | 4,833 | 1.8 | △16.0 | △53.0 | 64,398 | △23.9 |
| 르노삼성 | 14,014 | 5.3 | 36.0 | 201.6 | 99,296 | △3.2 |
| 대우버스 | - | - | - | - | - | - |
| 타타대우 | 891 | 0.3 | 36.2 | 204.1 | 7,160 | 110.7 |

* 자료 : 한국자동차산업협회

참고 2

10월 자동차 내수 판매 동향

- (총괄) 차량용 반도체 공급부족에 따른 출고 적체 현상 심화 등으로 △21.1% 감소한 125,296대
 - (현대) 차량용 반도체 부족 영향으로 인한 아반떼, 그랜저, 쏘나타페, 팰리세이드 등 주력모델들의 판매 감소로 △12.0% 감소한 57,813대
 - (기아) EV6, 신형 스포티지 등 신차효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부품 수급차질로 인한 생산 차질로 △21.2% 감소한 37,837대
 - (한국지엠) 반도체 공급부족에 따른 스파크, 트랙스, 트레일블레이저 등 주력모델들의 판매 감소로 △64.7% 감소한 2,493대
 - (쌍용) 반도체 공급 부족에 따른 생산차질로 모든 차종들이 큰 폭 감소를 보이며 △56.9% 감소한 3,279대
 - (르노삼성) 신차 및 판매모델 부족에 따른 판매 감소로 △30.0% 감소한 5,002대
 - (수입차) 독일계(BMW, 아우디), 일본계(도요타), 미국계(포드, 링컨)의 판매 감소로 전년동월비 △23.5% 감소한 19,033대
 - * 독일계 : 벤츠(△44.9%), BMW(△9.3%), Audi(+4.4%) 등 △25.8% 감소
 - * 일본계 : 도요타(△5.8%), 혼다(+69.1%) 등 △1.8% 감소
 - * 국가별 판매 증감률(%) : 미국 △26.9%, 영국 △16.4%, 프랑스 +58.7%, 이탈리아 +4.7% 등

< '21. 10월 내수판매 현황 >

(단위 : 대, %)

| 구 분 | '21. 10월 | 점유율 | 전월비 | 전년동월비 | '21. 1-10월 | 전년동기비 |
|-------|--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-----|-------|
| | | | | | | |
| 내수판매 | 125,296 | 100.0 | 10.0 | △21.4 | 1,428,226 | △7.9 |
| 현 대 | 57,813 | 46.1 | 31.8 | △12.0 | 598,655 | △7.8 |
| 기 아 | 37,837 | 30.2 | 5.7 | △21.2 | 441,185 | △4.7 |
| 한국지엠* | 2,493 | 2.0 | △35.6 | △64.7 | 49,156 | △26.8 |
| 쌍 용 | 3,279 | 2.6 | △15.0 | △56.9 | 44,276 | △36.9 |
| 르노삼성* | 5,002 | 4.0 | 13.7 | △30.0 | 47,805 | △40.8 |
| 대우버스 | - | 0.0 | - | - | - | - |
| 타타대우 | 677 | 0.5 | 22.6 | 118.4 | 5,550 | 92.6 |
| 수 입 차 | 19,033 | 15.2 | △16.1 | △23.5 | 252,290 | 9.6 |

* 자료 : 한국자동차산업협회, 한국수입자동차협회 / 한국지엠·르노삼성은 수입 판매차 수치 포함.

참고 3**10월 자동차 수출 동향**

- (총괄) 글로벌 점유율 상승세 및 친환경차 최다 수출기록에도 불구하고, 차량용반도체 부족 등으로 대수는 △18.1% 감소한 159,520대
 - (현대) 반도체 부품 수급 차질로 인한 아반떼, 그랜저, 제네시스G80, 코나 등의 수출 감소로 전년동월비 △6.8% 감소한 85,145대
 - (기아) 반도체 공급차질로 인한 K3, K5, 셀토스, 니로 등 주요모델의 수출 감소로 전년동월비 △18.9% 감소한 61,800대
 - (한국지엠) 반도체 공급 부족에 따른 생산 차질과 창원공장 라인 증설 공사로 인한 공장 가동 중단으로 전년동월비 △82.0% 감소한 4,383대
 - (쌍용) 티볼리, 코란도, 렉스턴 스포츠 등의 수출물량 감소로 전년동월비 △43.1% 감소한 1,470대
 - (르노삼성) XM3의 유럽시장 수출 증가로 전년동월비 1,590.1% 증가한 6,625대

< '21. 10월 업체별 수출 현황 >

(단위 : 대, %)

| 구 분 | '21. 10월 | 점유율 | 전월비 | 전년동월비 | '21. 1-10월 | 전년동기비 |
|------|----------|------|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|
| | | | | | | |
| 현 대 | 85,145 | 53.4 | 23.6 | △6.8 | 748,040 | 11.8 |
| 기 아 | 61,800 | 38.7 | 2.1 | △18.9 | 692,688 | 17.8 |
| 한국지엠 | 4,383 | 2.7 | △52.2 | △82.0 | 162,074 | △30.5 |
| 쌍 용 | 1,470 | 0.9 | △29.7 | △43.1 | 22,327 | 51.5 |
| 르노삼성 | 6,625 | 4.2 | △36.0 | 1,590.1 | 54,374 | 196.2 |
| 대우버스 | - | - | - | - | - | - |
| 타타대우 | 97 | 0.1 | △42.6 | 26.0 | 1,360 | 55.8 |

* 자료 : 한국자동차산업협회

참고 4

10월 친환경 자동차 동향(내수/수출)

- (내수) **全 차종 판매호조로 34,137대 판매, 전체 자동차 판매비중의 27.2%(13.9%p↑) 차지, 2개월 연속 월간 최다 판매비중 경신**

* 차종별 증감률(%) : 하이브리드(+27.9), 전기차(+204.1), 플러그인하이브리드(+93.3), 수소차(+46.9)

- 특히, 국산 전기차가 처음으로 月 1만대를 돌파, 국산 친환경차는 4개월 연속 2만대를 상회(26,534대)하며 전체 내수판매 증가 견인

* E-GMP 기반 전기차 판매대수 : 아이오닉5 EV 3,783대, EV 6 2,762대

< '21. 10월 친환경차 차종별 내수 현황 >

(단위 : 대, %)

| 구 분 | '21. 10월 | 전월비 | 전년동월비 | '21. 1-10월 | 전년동기비 |
|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-----|-------|
| 합 계 | 34,137 | 12.2 | 61.4 | 283,332 | 64.1 |
| 하이브리드(HEV) | 20,413 | 21.5 | 27.9 | 178,629 | 46.8 |
| 전기차(EV) | 10,934 | 4.3 | 204.1 | 79,521 | 97.4 |
| 플러그인하이브리드(PHEV) | 1,850 | △16.1 | 93.3 | 17,841 | 216.7 |
| 수소차(FCEV) | 940 | 0.1 | 46.9 | 7,341 | 44.3 |

* 자료 : 한국자동차산업협회, 한국수입자동차협회

- (수출) **대수는 32.9% 증가한 38,538대, 수출금액은 +41.8% 증가하며 2개월 연속 10억불 돌파(11.4억불) → 역대 최다 수출대수·금액 달성**

- 특히 전기차가 신차효과 등으로 월간 최다 수출(1.7만대)을 기록하며 전체 수출대수 증가에 크게 기여

* 연료별 수출대수: 하이브리드 17,993대(29.1%↑), 플러그인하이브리드 3,774대(97.7%↑), 전기차 16,718대(27.4%↑, 역대 최고), 수소차 53대(55.9%)

- 모델별로는 아이오닉5EV(5,071대), 니로EV(4,208대), EV6(4,189대), 투싼 HEV(4,125대), 아이오닉HEV(3,670대) 등이 수출 증가 견인

- 수출금액은 전기·수소차가 6.1억불(역대 최고)을 기록하며 전체 승용차 수출액의 29.7% 차지 → 수출단가 상승 견인

< '21. 10월 친환경차 차종별 수출 현황 >

(단위 : 대, %)

| 구 분 | '21. 10월 | 전월비 | 전년동월비 | '21. 1-10월 | 전년동기비 |
|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-----|-------|
| 합 계 | 38,538 | 10.3 | 32.9 | 317,602 | 41.5 |
| 하이브리드(HEV) | 17,993 | △1.0 | 29.1 | 169,293 | 64.9 |
| 전기차(EV) | 16,718 | 19.5 | 27.4 | 116,794 | 17.7 |
| 플러그인하이브리드(PHEV) | 3,774 | 37.7 | 97.7 | 30,570 | 40.7 |
| 수소차(FCEV) | 53 | 165.0 | 55.9 | 945 | 5.1 |

* 자료 : 한국자동차산업협회

참고 5

10월 업체별 자동차 국내 판매 현황

< '21.10월 업체별 자동차 국내 판매 현황 >

(단위 : 대, %)

| 구 분 | '21.10월 | 전월비 | 전년동월비 | 비중 | '21.1-10월 | 전년동기비 |
|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----|--------|
| 합 계 | 125,296 | 10.0 | -21.4 | 100.0 | 1,428,226 | -7.9 |
| 현 대 | 57,813 | 31.8 | -12.0 | 46.1 | 598,655 | -7.8 |
| 기 아 | 37,837 | 5.7 | -21.2 | 30.2 | 441,185 | -4.7 |
| 한국지엠 | 2,493 | -35.6 | -64.7 | 2.0 | 49,156 | -26.8 |
| 쌍 용 | 3,279 | -15.0 | -56.9 | 2.6 | 44,276 | -36.9 |
| 르노삼성 | 5,002 | 13.7 | -30.0 | 4.0 | 47,805 | -40.8 |
| 타타대우 | 677 | 22.6 | 118.4 | 0.5 | 5,550 | 92.6 |
| BMW | 4,824 | -2.4 | -9.3 | 3.9 | 57,265 | 21.6 |
| Mercedes-Benz | 3,623 | -42.0 | -44.9 | 2.9 | 65,855 | 9.5 |
| Audi | 2,639 | 129.5 | 4.4 | 2.1 | 18,560 | -4.8 |
| Volvo | 1,125 | -10.6 | -22.4 | 0.9 | 12,318 | 21.0 |
| Jeep | 750 | 26.7 | -20.0 | 0.6 | 8,700 | 27.6 |
| Volkswagen | 719 | -12.0 | -62.8 | 0.6 | 12,534 | 2.7 |
| MINI | 701 | -27.1 | -21.2 | 0.6 | 9,675 | 5.0 |
| Lexus | 656 | 1.9 | -24.7 | 0.5 | 8,128 | 22.8 |
| Honda | 526 | 2.5 | 69.1 | 0.4 | 3,571 | 50.2 |
| Toyota | 521 | 19.5 | -5.8 | 0.4 | 5,332 | 10.6 |
| Porsche | 512 | 4.5 | 106.5 | 0.4 | 7,723 | 17.7 |
| Ford | 502 | 69.6 | 0.8 | 0.4 | 5,008 | -11.8 |
| Land Rover | 327 | 14.3 | 7.2 | 0.3 | 2,556 | -29.7 |
| Peugeot | 250 | 15.2 | 40.4 | 0.2 | 1,917 | -6.3 |
| Lincoln | 195 | 18.9 | -57.0 | 0.2 | 2,897 | 14.1 |
| Citroen | 104 | 22.4 | 131.1 | 0.1 | 524 | -33.2 |
| Cadillac | 92 | -8.0 | -40.3 | 0.1 | 904 | -20.7 |
| Maserati | 57 | 14.0 | -1.7 | 0.0 | 654 | -1.5 |
| Lamborghini | 33 | -2.9 | 17.9 | 0.0 | 317 | 24.3 |
| Bentley | 17 | -73.8 | 13.3 | 0.0 | 390 | 71.1 |
| Rolls-Royce | 12 | -40.0 | -20.0 | 0.0 | 193 | 47.3 |
| Jaguar | 7 | -56.3 | -85.1 | 0.0 | 289 | -49.8 |
| Infiniti | - | - | - | 0.0 | - | -100.0 |
| Nissan | - | - | - | 0.0 | - | -100.0 |
| Tesla | 3 | -99.9 | -96.6 | 0.0 | 16,289 | 53.6 |
| 국산차 | 106,263 | 16.5 | -21.0 | 84.8 | 1,175,936 | -10.9 |
| 수입차 | 19,033 | -16.1 | -23.5 | 15.2 | 252,290 | 9.6 |

* 출 처 : 한국자동차산업협회, 한국수입자동차협회

* 국산차 : 현대, 기아, 한국지엠, 쌍용, 르노삼성, 타타대우

참고 6

10월 업체별 승용차 국내 판매 현황

< '21.10월 업체별 승용차 국내판매 현황 >

(단위: 대, %)

| 구 분 | '21.10월 | 전월비 | 전년동월비 | 비중 | '21.1-10월 | 전년동기비 |
|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----|--------|
| 합 계 | 111,380 | 11.2 | -19.4 | 100.0 | 1,237,024 | -8.6 |
| 현 대 | 48,700 | 41.9 | -5.6 | 43.7 | 468,954 | -9.3 |
| 기 아 | 34,008 | 5.7 | -19.2 | 30.5 | 389,610 | -4.6 |
| 한국지엠 | 2,493 | -35.6 | -61.2 | 2.2 | 45,680 | -26.2 |
| 쌍 용 | 3,279 | -15.0 | -56.9 | 2.9 | 44,276 | -36.9 |
| 르노삼성 | 4,705 | 9.2 | -33.0 | 4.2 | 46,905 | -40.6 |
| BMW | 4,824 | -2.4 | -9.3 | 4.3 | 57,265 | 21.6 |
| Mercedes-Benz | 3,623 | -42.0 | -44.9 | 3.3 | 65,855 | 9.5 |
| Audi | 2,639 | 129.5 | 4.4 | 2.4 | 18,560 | -4.8 |
| Volvo | 1,125 | -10.6 | -22.4 | 1.0 | 12,318 | 21.0 |
| Jeep | 750 | 26.7 | -20.0 | 0.7 | 8,700 | 27.6 |
| Volkswagen | 719 | -12.0 | -62.8 | 0.6 | 12,534 | 2.7 |
| MINI | 701 | -27.1 | -21.2 | 0.6 | 9,675 | 5.0 |
| Lexus | 656 | 1.9 | -24.7 | 0.6 | 8,128 | 22.8 |
| Honda | 526 | 2.5 | 69.1 | 0.5 | 3,571 | 50.2 |
| Toyota | 521 | 19.5 | -5.8 | 0.5 | 5,332 | 10.6 |
| Porsche | 512 | 4.5 | 106.5 | 0.5 | 7,723 | 17.7 |
| Ford | 502 | 69.6 | 0.8 | 0.5 | 5,008 | -11.8 |
| Land Rover | 327 | 14.3 | 7.2 | 0.3 | 2,556 | -29.7 |
| Peugeot | 250 | 15.2 | 40.4 | 0.2 | 1,917 | -6.3 |
| Lincoln | 195 | 18.9 | -57.0 | 0.2 | 2,897 | 14.1 |
| Citroen | 104 | 22.4 | 131.1 | 0.1 | 524 | -33.2 |
| Cadillac | 92 | -8.0 | -40.3 | 0.1 | 904 | -20.7 |
| Maserati | 57 | 14.0 | -1.7 | 0.1 | 654 | -1.5 |
| Lamborghini | 33 | -2.9 | 17.9 | 0.0 | 317 | 24.3 |
| Bentley | 17 | -73.8 | 13.3 | 0.0 | 390 | 71.1 |
| Rolls-Royce | 12 | -40.0 | -20.0 | 0.0 | 193 | 47.3 |
| Jaguar | 7 | -56.3 | -85.1 | 0.0 | 289 | -49.8 |
| Infiniti | 0 | | | 0.0 | 0 | -100.0 |
| Nissan | 0 | | | 0.0 | 0 | -100.0 |
| Tesla | 3 | -99.9 | -96.6 | 0.0 | 16,289 | 53.6 |
| 국산차 | 92,644 | 19.5 | -13.1 | 83.2 | 985,634 | -5.9 |
| 수입차 | 13,912 | -21.2 | -46.9 | 12.5 | 194,125 | -24.8 |

* 출처 : 한국자동차산업협회, 한국수입자동차협회

* 국산차 : 현대, 기아, 한국지엠, 쌍용, 르노삼성(5개사)



이 보도자료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과 이현진 주무관(☎044-203-4323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